신안군, 신안 해상풍력 어업인 수용성 보고회 개최

어업인단체로는 전국최초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서 발표

"해상풍력 사업 추진함에 있어 어업인 수용성 확보 가장 중요"

신안군, 녹색에너지연구원은 2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김장수 신안군어업인연합회장, 이도명 (사)신안해상풍력발전사협의체 위원장, 각 어업인단체 대표와 발전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위한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본행사에 앞서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어업인단체로는 전국최초로 '해상풍력 조성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안군어업인연합회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신안군연합회, 새어민회, 신안군어촌계연합회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어업인 대표로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어업인이 어업활동에 투자를 해야할지 결정하기 어려워졌다"며 '정부의 해상풍력 조성 촉구',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방안 및 합리적인 보상방안 수립 요구' 등의 내용으로 발표하였다.

본행사에서는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하여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커뮤니티 수용성 및 어업피해영향조사 용역 보고회'를 함께 가졌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 어업인 대체사업 및 상생모델 발굴, 어업인 피해보상 방안 등 논의를 통해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어업인의 수용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어업인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공존하는 상생여건 조성, 합리적인 보상방안 수립,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해상풍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 8.2GW 해상풍력단지를 2030년까지 조성되면 연간 3천억원의 주민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안=이덕주 기자

"아이 방과 후 돌봄 무안군이 앞장선다"

남악 무안비전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무안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초등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3월 2일 삼향읍 예수비전교회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무안비전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은 김산 군수,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임동현 부의장, 임윤택 의원, 박쌍배 의원, 정은경 의원, 주일한 예수비전교회 목사,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무안비전 다함께돌봄센터는 예수비전교회(목사 주일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며 이용대상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 미만(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돌봄을 제공하며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놀이, 학습,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무안군은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오룡호반써밋1차 커뮤니티센터에 지난해 6월 개소해 운영 중이며,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은 한국아델리움위너스아파트 작은도서관 내에 올해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사회 맞벌이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함평군, 단체관광객 유치 본격 '시동'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확대

함평군이 단체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관광산업 재도약을 꾀한다.

함평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여행사가 방문 인원, 관내 관광지 및 음식점 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여행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숙박 및 유료관광지로 한정했던 인센티브 기준을 당일 및 지정관광지 방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당일관광은 10명 이상 내외국인 또는 20명 이상 학생 단체 관광객이 지정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및 음식점 1식 이상 이용 시 1인당 5,000원이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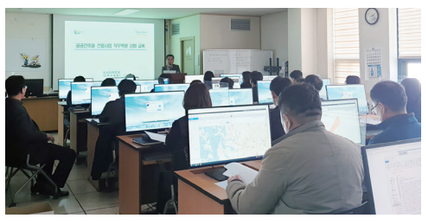
숙박관광의 경우 10명 이상 내외국인 또는 20명 이상 학생단체 관광객이 숙박시설 1박 이상 이용, 지정관광지 2개소 방문, 음식점 2개소 이상 이용 시 각각 2만원과 1만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방문 7일 전까지 사전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광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이제는 도시계획 · 건축이 어렵지 않죠"

영암군 공직자 도시계획·건축 업무 역량강화 직무교육 성료



영암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계획·건축 분야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도시계획·건축 분야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총 3기수)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건축 업무 관련 직무담당자 및 사업 담당자, 그 외 도시계획·건축 업무에 관심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직무교육은 목표 인원인 80명을 넘어 115명이 참석하는 큰 호응 속에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며, 담당 부서 및 관련 사업부서 외 일반 행정부서에서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날 교육에는 직원들이 평소 업무 추진 시 어렵게 느끼는 해당 분야의 전문용어 및 행정절차 등에 대한 유익한 내용이 많이 담겨 현장의 열띤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시종일관 경청하는 모습과 활발한 질의응답으로 직원들의 업무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영암=조대호 기자

목포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목포시가 노후된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3년도에는 총사업비 3억5천만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등 90동에 대해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창고·축사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건축물 완전 철거 시에는 건축물 대장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주택은 최대 700만원, 창고·축사 면적 200㎡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한해 동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4층)에 방문·우편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선정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영광군, 주민자치 역량 강화 위한 힘찬 첫 출발

영광군은 지난 2일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에 영광군 주민자치위원 30명이 참여해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역량을 끌어올렸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은 전라남도 주최로 전남 22개 시군의 주민자치위원·업무 담당자 등이 모여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영광군 주민자치위원이 가장 높은 참석률을 보이며 주민주도 자치에 대한 영광의 뜨거운 열망을 내보였다.

강대홍 영광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소극적으로 참석하였던 과거 워크숍과 달리, 금년에는 영광군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갖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홍기 홍농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올해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홍농읍이 선정된 만큼 주민자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라며 각오를 다졌다.

영광=서희권 기자